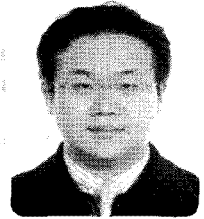


[특집: 구제역 종식 이후 축종별 사료산업 전망]

양계 사료산업 전망



김희성

(주)한국축산의회망 서울사료
마케팅 팀장(농학박사)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FMD)은 국내 양돈 사육두수의 33%인 330만두가 살처분 되는 우리나라 축산업 역사상 최악의 사태로 기록 되어졌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초유의 구제역 상황을 겪으며 방역과 소독을 비롯하여 사양관리의 기본을 재점검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초동 대응과 역학조사 미비 등에 질책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겨울은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기 날씨가 지속되면서 사육환경 악화와 더불어 양계업계에서도 2010년 12월 29일 에 2008년 이후 2년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시 발생하게 되었고,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627만수가 넘는 살처분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동기간에 구제역과 HPAI 동시 발생이라는 진기록을 남게 되었고, 기록적인 구제역 살처분 피해 여파에 밀려 AI 에 의한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양계농가의 피해와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

이다.

포괄적으로 볼 때 금번 축산 대란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차단방역시기를 놓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막대한 축산 농가의 금전적 손실 및 보상액 문제가 연계되면서, 축산농가의 책임 부분 논의와 함께 2012년 대규모 농가의 축산업 허가제 시행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8년까지의 AI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번 AI 의 원인도 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특히 철새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급증한 부분과 종오리, 육용오리를 필두로 육계에서도 다량 발생하였다.

특히 산란종계 및 종오리에서의 발생에 의해 초생추 및 중추의 수급 및 가격상승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생산성 약화에 따른 계란 및 계육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

본격적인 구제역 및 AI 이후 산란계 및 육계 부분의 향후 전망을 논하기 앞서서 금번 AI 의 발생상황을 2011년 3월 말까지의 상세 집계를 제시하여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신고 및 발생 현황

□ 총 괄 (51건 양성/ 100건 신고)

신고건수			검사실적			
전일누계	3.27일	누계	양성	음성	검사중	계
100	0	100	51	48	1	100

- ▶ 발생지자체 : 6개 시·도 24개 시·군(경기17, 충남6, 전북2, 전남23, 경북2, 경남1)
 - (경기) 안성4, 이천4, 파주1, 양주1, 평택3, 화성1, 동두천1, 여주1, 용인1 (충남) 천안5, 아산1, (전북) 익산1, 고창1, (전남) 영암9, 나주8, 화순1, 장흥1, 여수1, 보성1, 담양1, 고흥1 (경북) 성주1, 영천1, (경남) 양산1
 * 야생조류 AI 검출(20건) : 폐사체 16건, 분변 4건 (남양주, 하남, 평택, 진천, 천안, 아산, 서산, 예산, 익산, 해남, 사천, 울주, 보성, 김해, 화성)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FMD)은 국내 양돈 사육두수의 33%인 330만두가 살처분 되는 우리나라 축산업 역사상 최악의 사태로 기록 되어졌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초유의 구제역 상황을 겪으며 방역과 소득을 비롯하여 사양관리의 기본을 재점검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초동 대응과 역학조사 미비 등에 질책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겨울은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기 날씨가 지속되면서 사육환경 악화와 더불어 양계업체에서도 2010년 12월 29일 에 2008년 이후 2년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시 발생하게 되었고,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627만수가 넘는 살처분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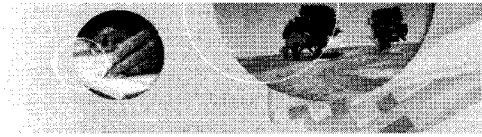
이렇게 동기간에 구제역과 HPAI 동시 발생이라는 진기록을 낳게 되었고, 기록적인 구제역 살처분 피해 여파에 밀려 AI 에 의한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양계농가의 피해와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포괄적으로 볼 때 금번 축산 대란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차단방역시기를 놓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막대한 축산 농가의 금전적 손실 및 보상액 문제가 연계되면서, 축산농가의 책임 부분 논의와 함께 2012년 대규모 농가의 축산업 허가제 시행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8년까지의 AI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번 AI 의 원인도 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특히 철새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급증한 부분과 종오리, 육용오리를 필두로 육계에서도 다량 발생하였다.

특히 산란종계 및 종오리에서의 발생에 의해 초생추 및 중추의 수급 및 가격상승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생산성 약화에 따른 계란 및 계육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

본격적인 구제역 및 AI 이후 산란계 및 육계 부분의 향후 전망을 논하기 앞서서 금번 AI 의 발생상황을 2011년 3월 말까지의 상세 집계를 제시하여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이동제한 해제 및 매몰 현황

□ 이동제한 해제 현황 : 51건 중 37건 해제(72.5%)

시·도	이동제한 시·군	해제 시·군	잔여 시·군
경기(17)	안성(4), 이천(4), 평택(3), 파주(1), 양주(1), 화성(1), 동두천(1), 여주(1), 용인(1)	안성(3), 파주(1), 양주(1), 평택(2), 동두천(1)	안성(1), 이천(4), 평택(1), 화성(1), 여주(1), 용인(1)
충남(6)	천안(5), 아산(1)	천안(2.18), 아산(2.18) 천안(3)	천안(1)
전북(2)	익산(1), 고창(1)	익산(2.13), 고창(1)	-
전남(23)	영암(9), 나주(8), 화순(1), 장흥(1), 여수(1), 보성(1), 담양(1), 고흥(1)	화순(2.19), 장흥(2.19), 여수(2.17), 나주(8, 3.2), 보성(1), 영암(9)	담양(1), 고흥(1)
경북(2)	성주(1), 영천(1)	성주(1)	영천(1)
경남(1)	양산(1)	-	양산(1)
계	51개소	37개소	14개소

□ 매몰 : 269개 농가 6,270천수(100% 매몰) - 2011년 3월 27일 현재

구분	축종	매몰 대상	
		농장	수수
총계	종오리	36	546,526
	육용오리	127	2,241,853
	산란계	30	1,769,223
	종계	6	366,295
	육계	21	935,373
	토종닭	35	91,411
	메추리	3	298,520
	기타	11	21,107
	계	269	6,270,308

이상과 같은 집계 이후 4월초에도 경북 영천 산란계 농가에서 2건의 AI 가추가로 발생되었고, 이동제한은 52건중 47건으로 90.4%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산란계 향후 전망

산란계 분야에서 금번 HPAI 발생의 최대 피해는 국내 사육 산란종계 62만수의 31%에 달하는

17만수 살처분에 의한 초생추 및 중추공급 문제였으며, 이와 함께 177만수를 넘는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계란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지난 2월에 종계입식이 이루어 지지 않고, 종계 살처분에 따른 판매수 급감으로 산란계 분양수수가 1,657천수로 급감하였고, 이는 2004년도 이후 최저치이다. 종계 살처분에 의한 장기적 수급불안 부분은 2월 하순부터 부화장이 재가동되면서 입란이 시작되어

3월부터는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살처분 종계의 공백으로 병아리 공급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이와 연계하여 계란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계란공급 차질 및 수급불안에 4월 부활절까지 겹치면서 난가 강세를 예상한 농가 및 유통상에서 재고물량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수도권 특란 기준 173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난가를 형성하였고, 이후에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난가가 생산원가를 크게 상회하면서, 농가의 입추 및 사육의지는 강한 상태로 시설 현대화와 사육규모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병아리 구입 비용은 수요 증가에 따라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점은 현재 높은 출하가격만을

믿고 강제 환우 농가가 증가되어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면, 잉여계란 및 품질저하로 인한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상기온과 환경악화로 인한 산란계 생산성 하락과 함께 추가적으로 형성된 난가 인상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은 2004년과 2008년의 HPAI 증식 이후 난가 상승 흐름을 살펴보면, 난가의 상승기조는 1년 이내에 하락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표 1)

HPAI 로 인한 병아리 공급부족, 계란생산계군 감소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질병발생 증가로 생산량 감소로 계란가격 상승과 노계 도태 지연현상은 올 한해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3)

(표 1) 계란 산지가격 변동

(단위:원, 특란 10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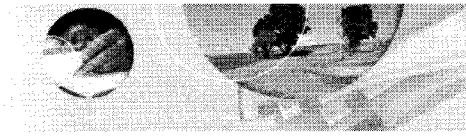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1340	1391										
10년	1079	1104	1076	1063	1037	1021	1009	1094	1301	1292	1252	1278
09년	1276	1130	1142	1165	1250	1229	1147	1185	1229	1155	1095	1091
08년	984	1019	1094	1068	1012	984	1003	963	1114	1151	1189	1237
07년	724	722	728	726	768	758	698	761	854	859	877	965
06년	829	699	773	789	781	816	820	859	949	860	787	716
05년	1276	1293	1613	1308	1206	1080	989	878	857	822	778	818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표 2) 노계 도태 동향 및 노계 가격 변동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노계 도태 동향 (단위:천수)												
11년	1363											
10년	1851	2548	2348	2500	2412	2740	1855	1600	1639	1517	1735	1719
노계 가격 변동 추이 (단위:원, 1.8kg 기준)												
11년	1290	1430	1600									
10년	1100	850	780	760	660	450	640	980	1100	1110	1180	1240

(자료 : 농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 대한양계협회)



(표 3) 병아리 입추 동향

(단위:천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2380	1659										
10년	2570	2338	3299	3178	2606	2419	2465	2368	2600	2822	3134	2962

(자료 : 대한양계협회)

그러나 단기적 전망으로는 이러한 노계 출하 지연에 의한 큰알 유통에 여유물량이 생기고, 중간 유통상인의 산지가격 인상에 따른 거래 부담이 증가되고, 여기에 단기 계란 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자 구매 위축 상황 등이 누적되어 계란 시장 전체의 부담이 커져, 부활절이 지나면서 난가 강세는 한풀 꺾일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4월 부터는 축산물 위생관리가 강화되면서 계란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계란)에 대해서는 포장유통을 의무화하고, 계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이 신설되어 계란유통 종사자들의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었다. 유통협회에서도 AI 발생 이후 계란운송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 등 방역에 차별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 소비자 계란 소비 패턴의 변화와 맞물려 전체적인 유통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및 방역 대책 등에 대해서도 각 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HACCP 추진 방안과 함께 자체 차단방역 및 소독 시설은 물론이고 기금 농장 출입차량(사료, 왕겨, 동물약품, 계란유통, 계분 등)의 관리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것은 금번 구제역과 AI 사태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료공장 자체적인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연중 소독, 방역대책의 강화 방안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 부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병아리와 산란계 사육수수 감소에 따라 2월 육추 사료 생산량은 22,450톤으로 전년대비 6.2% 감소하였고, 산란사료 또한 154,606톤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강보합세의 난가 지속과 연계하여, 노계 도태 지연, 수입 산란 실용계 병아리 공급 및 AI 피해 농가의 재입식 일정 등과 맞물려 생산 및 소비의 등락이 급변할 수 있겠지만, 연간 전체 사료 생산량은 보합 내지는 연말 소폭 상승 마무리도 예상되고 있다.

4. 육계 향후 전망

육계분야도 2008년과 비교하면 오리와 산란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육용종계를 비롯한 육계 및 토종닭을 합쳐 120만수 이상이 살처분 되었고, 특히 전북지역은 2006년부터 3번째 AI 가 발생하면서 상시 발생 우려를 더해 주었다.

물론 기후변화 논란을 가져왔을 만큼 폭설과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속적 한파로 그 어느 해 겨울보다도 최악의 사육환경하에서 육용

종계와 병아리 품질은 물론 육계 생산성을 위해 고분 분투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피해로 마무리 된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이다.

현재 육계시세는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kg당 2,600원이라는 고가로 유지되고 있다. 이상기온과 AI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연료비 상승 등으로 상대적 육계 병아리 입추가 부진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사육환경 악화 및 질병에 의한 생산성 악화가 이와 같은 고가의 시세 형성을 가져온 원인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종계 입추수수가 증가한 상황에서도, 수당 실용계 병아리 시세가 800원 이상으로 높게 형성된 것은 외적인 단기 변수에 의해서도 육계 산업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 육계 산업으로 보면 과포화 상황임에도 이러한 고가의 시장상황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일부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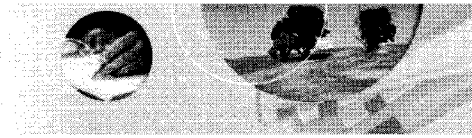
작년 종계 입추수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불황이 예상되자 계열화 업체를 중심으로 연말에 적극적 종계 도태를 실시하여 입란 숫자를 줄였고, 이러한 상황에 장기간 혹한과 환경악화, 질병으로 병아리 및 육계 생산성 크게 저하되었고, 여기에 HPAI 발생으로 병아리 수급의 일시적 불균형 까지 겹치게 된 것이 그 이유이다.

2월 육용종계 입식수는 430,900수로 전년대비 2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계 입식수를 토대로 추정한 3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55,718천수로 전년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닭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2월 육용종계 사료는 21,543톤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PAI

(표 4) 육계 관련 통계 자료

월별	연도	사료(톤)		육용종계 (입추 수수)	실용계 생산 잠재력 (천수)	병아리 생산 (천수)	검역기준 수입 (톤)	서울 (대) 산지가격 (원/kg)
		육계	종계					
1	2010	134,533	23,331	355,100	47,139	40,593	6,754	2,397
	2011	149,845	22,472	208,100	53,710	41,999	6,751	2,000
2	2010	131,477	22,709	555,200	47,146	39,202	5,734	2,179
	2011		21,543	430,900	55,718		7,162	2,293
3	2010	162,567	24,380	687,300	49,394	50,378	9,310	2,471
4	2010	183,388	25,859	645,280	52,889	56,794	9,168	2,093
5	2010	199,529	23,924	504,900	55,480	61,823	8,812	1,661
6	2010	213,170	22,352	401,300	56,291	66,913	12,405	2,023
7	2010	210,611	22,481	578,400	53,971	62,481	10,281	2,016
8	2010	159,230	20,799	831,400	50,714	44,681	13,319	1,806
9	2010	146,944	21,839	713,600	50,238	41,607	11,183	1,543
10	2010	151,397	23,077	606,600	51,244	43,985	9,451	1,687
11	2010	166,058	22,748	461,700	54,537	47,681	8,054	1,577
12	2010	174,144	22,220	343,600	55,976	48,258	8,054	1,577
합계	2010	2,033,048	275,609	6,684,380	625,019	604,396	112,805	1,911
	2011							

(자료 : 월간양계)



로 인한 육용종계 살처분수 20만수로 인해 생산공백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여기에 닭고기 시장가격 급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5만톤의 수입닭고기 할당관세를 푸는 대안과 함께, 실제 2월 닭고기 수입량은 7,162톤으로 전년대비 46.7% 급증한 상황이다. (표 4)

이러한 전반적,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 입추한 종계가 사상 최고치인 638만수 인 점과, HPAI 로 살처분한 종계수수가 20만수 내외(3%)인 점을 고려하면, 5월말부터 생산성 개선과 함께 현재 육계시세를 염두에 둔 입추물량의 급증 등은 수급 불균형에 의한 향후 가격 약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5. 결 론

국내 축산업 역사상 유래 없는 최악의 구제역 상황과 HPAI를 겪으며 전반적인 축산농가들은 기온변화 및 주변국가들의 질병현황의 새로운 인식과 함께 시설, 사양관리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방역시스템과 초동 대응에 대해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현재 시점에서의 양계산업은 생산물의 가격 면에서만 보면 호황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당장 HPAI 발생 뿐 아니라 2010년 겨울과 2011년 환절기를 겪으며 흑한기 지속에 의한 사양환경 악화로 시설개선(현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

며, 이와 연계하여 필드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다양한 질병 문제의 개선을 위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7월부터 사료에 일부 항콕시딴제를 제외한 항생제의 사용이 중단되면 지금까지의 생산성을 결코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평사육성을 하는 중추전문농장 및 육계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산성 저하 부분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변과 같은 겨울철 흑한기가 재현된다면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육계 분야는 90% 이상이 계열화 업체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업체별로 생산성 개선은 물론 수급 예상과 함께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사료 원가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적 이상기후에 의한 곡물작황 부진과 중국의 소비증가, 유가상승 등에 기인하여 3-4월에 단행된 가격인상에 더하여, 2011년 5월말에서 6월 이후 한 두차례의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 높게 형성된 난가와 닭고기의 가격이 보합세로 연착륙하지 않는다면 수급 불균형과 함께 농가의 수익 저하를 조심스럽게 전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AI 종식과 함께 정부는 물론 농가가 중심이 되어 사료회사, 수의, 동물약품, 유통업체 등 모든 양계업 관련 종사자들은 책임 의식을 갖고 2010년 말 발생한 HPAI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 구축과 함께 가금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반 안정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